

특별회의[COP27 로드맵]

지역적응계획과 인권의 통합

2022. 10. 11.(화) 9:30-12:00

주관: 라울발렌베리인권연구소(RWI)

배경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제2실무그룹(WGII) 6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도시 및 도시 지역에서 기후변화로부터 비롯된 위험이 인간과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다." 전 지구적인 기온 상승은 기상 이변을 심화시키고 열대성 질환의 확산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기후 유발 재난이 도시-농촌 간 이주를 촉발하기도 한다. 이는 도시의 기본적인 서비스, 인프라, 환경, 주택, 생활 등에 엄청난 문제를 초래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는 기후변화를 가장 먼저 직면하는 주체로서 기후변화 적응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이 자명하다. 그러므로 도시는 인권을 근간으로 한 기후변화 적응을 추구하는 중요한 행위자가 될 것이며, 이 때에 인권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기후변화 적응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을 보호하고 이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글래스고 기후변화 적응 임페러티브(Glasgow Adaptation Imperative)는 광범위한 기후변화 회복력을 갖춘 미래를 지향하는 COP27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행동과 진전을 제시한다. 이는 보다 폭넓고 공정하며 효과적인 지역 주도의 적응 노력이야말로 기후 취약성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의미한 기회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인권은 지방정부와 이해당사자가 시민들에 집중하여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유의미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지할 수 있다.

라울발렌베리인권연구소는 국가적응계획(NAP) 및 도시용 핸드북에 대해 연구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본 세션에서는 지방 정부가 어떻게 지역 내 기후변화 적응 노력에 인권을 반영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목표

1. 전국 및 지역적으로 인권과 기후변화 적응 간의 상호강화적인 관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2. 인권을 바탕으로 한 지역 내 기후변화 적응 정책, 계획,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겪은 경험, 어려움, 모범사례의 공유를 도모한다.



주요 논의사항

1. 인권과 기후변화 적응 간의 관련성을 논의한다.
2. 인권을 바탕으로 한 지역 내 기후변화 적응 정책, 계획,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역내에서 겪은 경험, 어려움, 모범사례를 공유한다.
3. COP27에 앞서 각 도시가 기후변화 적응의 맥락에서 인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다.

